

■ 박근종 칼럼

## GDP 대비 통화량 미국 두 배, 원화 약세·성장동력 약화의 악순환 끊어야



기업의 자산을 필요한 시기에 손실 없이 화폐로 바꿀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시중 유동성(liquidity)을 보여주는 통화량이 넉 달 연속 8%대 큰 폭 증가세를 나타내면서 시중에 풀린 과도한 유동성이 환율과 집값 불안의 근본 배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지난 1월 14일 발표한 지난해 11월 '광의통화(M2 | 총통화)' 평균 잔액은 전년 동월 대비 8.4% 늘어난 4,067조 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광의통화(M2) 증가율은 지난해 8월 이후 넉 달 연속 8%대(8월 8.1% → 9월 8.5% → 10월 8.7% → 11월 8.4%)를 웃돌고 있다.

8%대 증가율은 2022년 7월(8.3%)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M2는 시중 유동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로, 현금·요구불예금·수시입출식 예금 등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의미한다. 한국은행은 이번 통계부터 기존 M2에서 상장지수펀드(ETF) 등 수익증권권을 제외한 기준을 적용하는데 신 계열 기준 증가율은 4.8%다.

신·구 계열 기준 모두 M2 증가율은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이다. 신 계열 기준 한국의 M2 증가율은 지난해 10월 기준 5.2%로, 미국(4.6%), 유로(EURO) 지역(3.1%), 영국(3.6%), 일본(1.1%) 등보다 높다.

특히 경제 규모에 건준 통화량 역

시 상대적으로 높다. 국내총생산(명목 GDP) 대비 통화량(M2)이 153.8%(2025년 3분기 기준)로 여타 선진국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양적완화가 잦은 미국 71.4%의 두 배 이상이자 유로 지역 108.5%를 압도하는 높은 수준이다.

실물 경제 규모에 비해 유통되는 시중 통화가 많다는 의미로 시중 통화량이 상대적으로 많이 풀렸다고 볼 수 있다. 통화량 비율은 코로나19 이후 추세적으로 늘어 2023년 1분기 157.8%로 정점을 찍고 하락해 2024년 4분기 151.6%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다시 반등했다.

눈에 띄는 점은 코로나19 이후 물가 상승과 긴축(금리 인상) 이후에도 통화량 비율이 줄지 않았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2023년 1분기 149.1%에서 153.8%로 소폭 높아졌다. 반면, 같은 기간 미국은 87.4%에서 71.4%로 줄었다. 유로 지역(126.7% → 108.5%)과 영국(135.8% → 105.8%)도 상당 폭 하락했다. 일본은 우리보다 높은 수준이나 통화량 비율(262.5% → 243.3%)은 감소(↓)했다.

20여 년 전 세계 최초로 '제로 금리'를 도입하며 돈 풀기로 대남일 일본(243.3%)의 'M2 비율'이 한국보다 높다. 하지만 엔화는 가축통화라는 점에서 단순 비교는 무리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주요국과 달리 성장률 대비 유동성이 더 확대된 셈이다.

이는 재정 확대와 금리 인하로 돈이 많이 풀려 원화 약세와 자산 가격의 상승을 부른다는 지적과 함께 장기간 한·미 간 기준금리 역전(한국 기준금리 연

2.5%가 미국 기준금리 3.50~3.75%보다 낮은 상태)을 방치한 결과라는 비판으로 이어진다.

무엇보다 한국만이 유일하게 M2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걱정을 키우고 있다. 지난해 1~3분기 한국의 M2 비중은 22%포인트 오른(↑) 데 반해, 일본(-5.7%포인트 ↓)·유로존(-2.0%포인트 ↓)·미국(-0.4%포인트 ↓) 등은 일제히 하락(↓)했다. 외환 당국이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개입해도 유독 원화가 약세를 면치 못하는 것과 맞아떨어지는 상황이 신명하다. 무려 32개월 연속 경수지 흑자로 월 100억 달러 안팎의 달러가 대량 유입되는데도 원·달러 환율은 재차 1,500원을 향해 치솟는 중이다. 통상 통화량은 물가를 통해 통화 가치에 반영된다. 통화량 증가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고 물가가 오르면 구매력 하락으로 통화 가치는 하락한다.

최근 고환율 여파로 수입 물가가 오르면서 소비자물가는 2%대 중반 수준으로 상승했다. 특히 M2 비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100%를 넘어선 뒤 가파르게 높아져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 150%까지 돌파했다. 잠재성장률이 추락하고 예상 밖 사건이 터지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았겠지만, 너무 느슨한 관리 정황도 명백히 포착된다.

최근 3년간 한국의 M2 비율은 3.9%포인트 급등(↑)해 일본(-21.0%포인트 ↓) 유로존(-9.4%포인트 ↓) 미국(-7.9%포인트 ↓)의 급감(↓)과 분명한 대비를 이룬다. 통화량 증가는 서울 중심의 집값 급등 배경으로도 볼 수 있다.

한국은행은 최근 통화량 증가 폭은 장기평균보다 높은 수준은 아니며, 특히 과거 금리 인하기에 견줘보면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한다. 특히 환율 상승 압력은 유동성 요인보다는 해외 증권투자 확대와 수출기업의 외화 보유 선호 등 외환시장의 공급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게 한국은행의 시각이다. 무엇보다 원화 약세를 서해개미와 국민연금 탓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원인과 결과의 혼동이 아닐 수 없다. 통화량 증발에 따른 원화 약세와 그로 인한 성장을 부진이 먼저이고 해외 투자는 그에 따른 대응 차원이다. 최근 M2 증가율이 '장기평균을 소폭 웃도는 수준'이라는 해명도 장기평균의 과도한 증가를 방치했다는 스스로 고백에 불과하다.

금리를 올려 유동성을 줄이게 되는 경우는 한·미 간 성장률 격차가 확대돼 오히려 환율 압박이 될 수 있다는 진단도 내놓는다. 유동성 증가가 환율에 영향을 미치려면 물가상승률이 미국보다 높아 환율이 상승하는 경로를 거쳐야 하는데, 현재 한국의 물가상승률은 2%대 중반으로 3%를 넘는 미국보다 낮다는 주장이다. 물론 통화당국만의 책임이 아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금증을 불렀고 무엇보다 재정 당국은 내수를 살리기 위해 불가피하게 대규모 소비쿠폰 살포를 반복해 온 건 사실이다. 이전 통화량 발(發) 원화 약세와 성장동력 약화의 악순환을 서둘러 끊어낼 때임을 각별 유념해야 한다.

작가·칼럼니스트(현,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 전, 서울특별시자치국공단이사장협의회 회장·전, 소방준감)

## “용인 반도체 산업 지방이전론이 여당 정치인에서 계속 나오면 국가와 정부에 대한 신뢰 떨어질 것”

“국가산업단지는 정부가 지정한 것인데, 정치적 목적과 환경에 따라 입지를 바꿀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여당 중진 정치인들이 내는 것은 국가와 정부 신뢰에 엄청난 타격을 주는 행위다.”

이상일 시장은 4일 용인미디어센터에서 오전 기흥구 동백1·2·3동, 오후 구성·마북·보정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권역별 소통간담회에서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일부 여당 소속 정치인들이 전력이 생산된 곳에서 소비해야 한다(지산지소)며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옮기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력은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한 요소일 뿐이고 지산지소가 반도체의 최우선 가치는 아니다”라며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 등 반도체 생태계가 형성돼야 하고, 용수와 인력 등의 중요 요소가 종합적으로 맞아떨어져야 반도체가 생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용인의 반도체 팹이 착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용인 산단을 새만금 등으로 옮기자라는 것은 광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국가전략차원에서 진행되는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들을 정치적 목적, 정치 환경에 따라 입지를 여기저기 옮길 수 있다고 하는 발상은 나라와 정부에 신뢰의 문제를 낳게 한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에는 불확실성의 문제를 일으켜 불안을 주게 된다. 정부 발표를 보고 용인에 투자했거나 입주 계

이 시장 “국가산단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정부가 지정…정치 목적, 정치 환경 따라 입지 바꿀 수 있다는 발상은 정부에 대한 신뢰 위기 초래”



획을 세운 소부장 기업으로서 얼마나 황당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 생태계는 용인뿐만 아닌 경기 남부에서 40년간 형성돼온 것으로 350개가 넘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이 용인과 이전, 팹택, 화성, 안성에 포진해 있다”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앵커기업만 이전한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한 시간 이내에 반도체 장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소부장 기업이 위치해야 생태계가 형성되는 것이고, 반도체 산업 경쟁력도 좌우한다”고 했다.

이 시장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지방이전론은 정부에 신뢰의 위기를 불러오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이미 수립된 용인에 대한 전력·용수공급 계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말하면 사라질 논란인데 이런 이야기를 아직도 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계속되는 것이 답답할 따름”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는 갈라먹을 수 있는 파전이 아니다”라며 “적어도 4개 팹 이상이 모여 있어야 규모의 경제로 생산 효율이 높아지고 경쟁력도 갖춰지는데, 새만금·익산 등으로 용인 반도체 산단을 나누면 우리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상일 시장은 주민들로부터 지역 현안 사항을 논의하고, 건의 사항을 청취하며 지역 발전 방안도 논의했다.

동백1·2·3동 주민들은 ▲동백나들목(IC)·동백신봉선 신설 신속 추진 ▲동백8로 일원 노후도로 개선 ▲동백2동 내 실개천 정비 ▲동진원 분교 폐교 부지 활용방안 ▲동백미르휴먼센터 수영장 이용자추첨제 등 가이드라인 마련과 구 내식당 향상 위한 운영 방안 마련 ▲동백~수지·처인 간 노선 증차 등을 건의했다.

구성·마북·보정동 주민들은 ▲옛 경찰대 부지 내 구성북치화관 건립 ▲노후 차량 교체·전기버스 도입 ▲체육시설 공중화장실 설치 ▲구성중·마성초등학교 보행구간 차양(캐노피) 설치 ▲보정미르휴먼센터 내 헬스장 운영 등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한걸음 멀리서 보면 용인은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 등으로 훌륭한 도시로 변모 중이지만, 시민들께서 생활하시는 동네나 지역에는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을 터 주민 말씀에 대한 해법이 내 개선택을 잘 마련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전 과정을 신속하게 추진함으로써 겨울철 한파가 지속되는 시기에 대중교통 이용 주민들의 불편을 실질적으로 해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설치 이후 대중교통 대기 환경이 전 반적으로 개선됐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으며, 출퇴근 시간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체감 만족도 역시 높게 나타났다고 있다.

포천시 관계자는 “버스승강장은 많은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생활 공간인 만큼 작은 환경 개선도 체감 효과가 크다”며 “앞으로도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불편 사항을 세심하게 살피고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민수 기자

## 까지 호랑이 배지·반가사유상…

## 밀라노서 '뭇즈' 선보여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코리아하우스서 총 96종 상품 선보여



까지 호랑이 배지, 반가사유상 미니어처 등 박물관 문화상품 '뭇즈'(MU:DS)가 동계 올림픽이 열리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소개된다.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은 2026 밀라노·코르티나남페조 동계 올림픽이 열리는 5월(현지시간)부터 22일까지 현지 코리아하우스에서 '뭇즈'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운영하는 코리아하우스는 밀라노 시내 중심부의 역사적인 건축·문화공간인 밀라 네키 캄필리오에 문을 연다.

재단은 별도 부스를 설치해 사유, 청자, 백자, 나전, '케이팝 데몬 헌터스' 등을 주제로 한 다양한 상품 96종을 소개할 예정이다.

까지 호랑이 모양 배지 등 인기 상

품 일부는 현장에서 판매한다. 재단 측은 '뭇즈'가 유럽 시장에 처음으로 공식 진출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용석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사장은 “K-굿즈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인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세계인이 소장하고 싶은 국가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뭇즈'는 국립중앙박물관과 소속 지역 박물관의 소장품을 바탕으로 만든 문화상품으로, '뮤지엄'(museum)과 '굿즈'(goods)를 합친 브랜드를 일컫는다.

지난해 '뭇즈' 매출액은 약 413억3천700만원으로, 직전 해인 2024년 매출(약 212억8천400만원)의 1.9배에 달하며 역대 최고 기록을 달성했다.

## 인천시, 겨울철 어선·낙시어선 안전점검

2월 4~28일까지 관계기관 합동 실시, 동절기·성어기 대비 관리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겨울철 기상 악화로 인한 어선 사고를 예방하고, 다가오는 봄철 성어기와 행락철을 대비하기 위해 2월 4일부터 2월 28일까지 어선과 낙시어선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인천시를 비롯해 해양수산부, 군·구, 인천해양경찰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인천어선안전조업구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합동으로 추진된다.

점검 대상은 인천시에 등록된 어선 1,473척 가운데 ▲10톤 미만 노후 어선 ▲사고 이력이 있는 어선 ▲승선원 2인 이하 1일 조업선 등 사고 위험이 높은 어선을 중심으로 선정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기관실 설비 상태 ▲구명조끼·구명부환 등 안전장비 비치 여부 ▲위치발신장치 등 항해·무선설비의 작동 상태 ▲동절기 화재 발생 요인 및 소방설비 비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구명조끼나 소화기 비치 미흡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승선 정원 초과나 음주 운항 등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분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점검 기간 동안 ▲어구 실행제 준수 ▲지난해 10월 19일부터 시행 중인 승선원 2인 이하 소형어선 구명조끼 의무 착용 ▲올해부터 시행 예정인 전 어선원 구명조끼 의무 착용 제도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계도와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김익중 시 농수산식품국장은 “동절기 어선과 낙시어선 사고는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어업인과 승객 모두가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인천시는 어선 안전사고 예방과 어업인의 생명·재산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심하린 기자

## 포천시, 버스승강장 방풍막 설치로 겨울철 주민 불편 적극 해소

공감·소통 간담회 건의사항 반영… 가산면 선제적 추진

포천시는 겨울철 한파와 강풍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고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줄이기 위해 관내 버스승강장에 방풍막을 설치하며 생활밀착형 안전 개선에 나섰다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1월 8일부터 14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운영한 '공감·소통 간담회'에서 제기된 주민 불편사항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시민의 일상 속 불편을 현장에서 듣고 신속히 조치한 적극행정 사례로 평가된다.

포천시는 교통행정과를 중심으로 거

울철 대중교통 이용 환경 개선을 추진하며 관내 버스승강장을 대상으로 방풍막 설치를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읍면동에서도 지역 어르신 주민 이용 실태를 고려해 자체 사업을 병행하며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있다.

특히 가산면은 주민 체감도가 높은 과제를 자체적으로 발굴해 선제적인 현장 행정을 추진했다.

가산면 행정복지센터는 이용객이 많은 버스정류장을 중심으로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지난 2월 2일 관내 버스승강



장 13개소에 방풍막 설치를 완료했다.

이번 방풍막 설치 사업은 주민 의견 수렴부터 대상지 선정, 설치 완료까지